

리더십 공백 두 달... 소비·투자 위축 우려

파면 결정 불확실성 줄었지만 국내외 변수 도사려

정부 경기부양책 실효 의문... 기업 투자 연기 조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지만, 한국경제는 대선 전까지 리더십 공백이라는 짐을 떠안게 됐다. 문제는 대선까지 남은 두 달여 간 한국 경제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대내외 이슈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예상되고 오는 4월에는 미국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발표된다.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사드(THAA·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도 관건이다. 다음 달에는 1분기 경제지표를 근거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달간 '선장 없는' 대한민국=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대선 전까지 대통령이 없는 사상 초유의 시기를 보내야 한다. 리더십 공백은 정부·가계·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리더십 부재로 대선 전까지 실물경기를 반전할만한 뚜렷한 정책적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은 소비나 투자 등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새 대통령 등장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 관련 검찰 조사가 계속되면 이와 관련된 대기업의 투자 심리는 더 쪼그라들 수 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선장 없는 정부가 과연 경기 부양을 위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경기가 바닥인 상태에서 실물경기를 반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까지 주춤하면 지난해 임시직 고용 감소 등으로 소득기반이 취약해진 저소득층의 실업률은 또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계속되는 대외 악재=시한부 컨트롤 타워 역할 '주목'=한국의 내부 사정과 무

■한국 경제 4대 위협

- ① 미국 금리 인상
- ② 중국 사드 경제 보복
- ③ 트럼프 정부 보호무역
- ④ 브렉시트 여파 불확실성

관하게 대외 불확실성의 안개는 날이 갈수록 짙어지는 양상이다.

당장 미국·중국 등 주요 2개국(G2)을 비롯한 외국의 압박 수위는 눈에 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은 관광이나 유통을 시작으로 예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까지 전방위로 확산할 기세다.

하지만 당장 두 달 뒤 새 대통령이 결정 보호무역주의 기치를 내걸고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외치며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미국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이달 6일 LG와 삼성이

세탁기 생산공장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기면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연례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 적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며 한미FTA 재협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도 코앞에 닥쳐왔다. 사실상 확정적인 이달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시장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불을 붙이는 빌미가 될 수 있다.

G2뿐 아니라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총선을 앞둔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 우파 정당 득세 가능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부처별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쏟아냈다.

하지만 당장 두 달 뒤 새 대통령이 결정을 앞두고 조직 개편론까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상황에서 이들의 빈틈없는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대세다. /연합뉴스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 코스피 등락률



줄어든 불확실성... 국내 증시 안정세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국내 증시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내면서 다소 안도감을 찾았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10일 주시, 채권, 원화 가치는 일제히 올랐다.

코스피는 탄핵선고 직후 2100선을 탈환했다가 전날보다 6.29포인트(0.30%) 오른 2097.35에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0.7원 내린 1157.4원에 마감했다.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9bp(1bp=0.01%p) 내린 연 1.780%로 마쳤다. 5년물과 1년물 금리도 0.8bp씩 내렸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12일 "헌재 결정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한 점은 주가가 나쁘지 않다"며 "그동안 세계 증시 랠리에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소외됐는데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계 유통성 축소 우려와 대선 실시 등 국내 정치 불확실성도 남아 있어 관망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연합뉴스

한전, 사이버 위협 대응 주요 전력설비 긴급점검

한국전력 조환의 사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반포변전소를 찾아 주요 전력설비에 대한 물리적·사이버 보안 대비태세를 긴급점검 하였다.

이날 조환의 사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에 대비한 물리적 방호와 전력제어망에 대한 해킹시도 등에 대비한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였다. 조 사장은 특히 중요시설 경계·상황근무 강화, 비인가자 출입통제, 정보시스템 침투탐지, 보안감시 등을 강화하고 산별 대비 및 해빙기 설비안전 철저 등 전력설비에 대한 자체점검 강화와 고객들이 정전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대국민 전력서비스를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긴급상황 대비 설비 담당자 및 협력업체 비상연락망 정비, 기반시설 등 백신 최신 상태 유지, 사이버해킹 모니터링 강화 등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한전 조환의(가운데)사장이 12일 반포변전소를 찾아 시설 긴급점검 후 설명을 듣고 있다. <한전 제공>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인수 본격 작업

SPC 금호인베스트 설립... 전략적 투자자 확보 나서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한 본격적 체결이 임박하면서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행보도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청구권 행사 기한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자(FI)를 충분히 끌어모으려 분주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13일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 주시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 매각 가격은 9550억원 가량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SPA 체결 후 3일 이내에 해당 계약 조건을 박 회장에게 통보하면 30일 이내에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해서는 매각 가격인 9550억원 이상의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 박 회장은 복수의 재무적 투자자(FI)를 통해 인수 자금 1조원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개인 자격으로 마련한 자본금 1억원으로 '금호인베스트'라는 이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박 회장 개인이 세운 SPC를 통해 재무

로또복권 (제745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2 3 9 21 23 10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746,822,982	2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22,631,000	110
3 5개 숫자일치	674,272	3,692
4 4개 숫자일치	50,000	141,918
5 3개 숫자일치	5,000	1,955,276


AI 여파... 산 닭 가격 1년 새 1000원 급등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닭고기 산지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12일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점으로 kg당 육계생계(소) 시세가 2690원으로, 지난해 3월 7일 대비 59.2% 급등했다. 육계생계는 도축 전의 살아있는 상태의


닭을 의미하는데, 1년 사이 산지 시세가 1000원이나 오른 셈이다. 육계협회가 고지하는 생계 시세의 경우 하림, 체리부로, 이지바이오 등 5개 닭 가공 기업 회원사들이 그때그때의 수급 상황을 반영해 선정하고 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그나마 번식용 닭


의 어미 격인 '원종계' 피해가 작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원종계에서 번식용 닭이 생산돼 다시 식용 닭을 부화하기까지 적어도 27~30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이 회복되려면 최소 반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